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 ①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 ② 본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 ③ 보호자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ccess/use/moving
ATAAC Amenity Technical Assistant Center For The Disabled, etc.



HEADLINE

특집 I 2~3P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 인터뷰



특집 II 12~13P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이·취임식



인물 14P

“국내 기술로 세계 최고의
휠체어 만들거예요”



건강 19P

“더운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지장협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 취임

“이젠 뼈아픈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7월 15일 오후 4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취임식을 갖고 ‘지장협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 회장은 지난달 393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222표를 획득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취임식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이낙연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보건복지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 등을 비롯한 지장협 17개 시·도협회장,

232개시·군·구지회장,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금의 지장협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뼈아픈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깨끗한 지장협, 합리와 상식이 통하는 지장협, 동양 최대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모범이 되는 지장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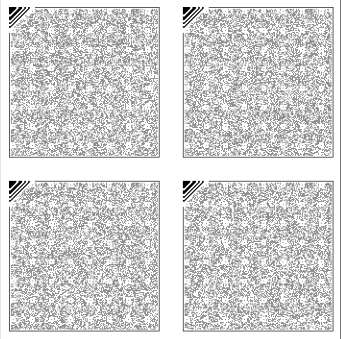
또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실현을 위한 故 장기철 초대 중앙회장님과 우

리 지장협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우리 모두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임하며 공로패와 명예회장 추대패를 받은 김정록 전 중앙회장은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남겨둔 채 김광환 후임 회장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장애인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는데 모두 합심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13면에 계속〉

소리로 읽는 새보람



7월 1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제7대 중앙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변혁을 공언한 만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4년 동안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이끌어가게 될 김광환 중앙회장과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계에 몸담게 된 계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그의 이념, 그리고 지장협 운영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 인터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

Q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지장협 중앙회장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장애계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당선증을 받는 순간부터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8년 전 故 장기철 회장님을 보좌했던 저는 지장협 중앙회장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장협 회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장애계에 몸담게 됐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장애인에 대한 이념은 무엇입니까?

A 지장협 故 장기철 회장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장애계에 몸담게 됐습니다.

젊은 날 저는 선생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 대학에 갔고 졸업과 동시에 교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선생으로 받아주는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혹 있더라도 학교 기부금을 요구하곤 했고 그것이 싫어 결국 선생의 꿈을 포기 했습니다.

교직이야말로 정직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가 산뜻하지 못해 실망이 컸습니다.

그 이후 세 곳의 직장을 전전하다 1990년 7월 장 회장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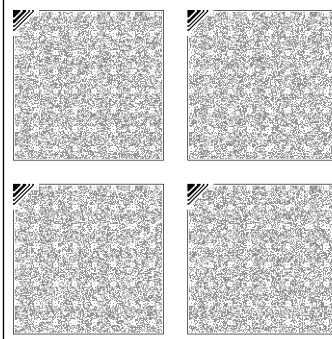
그해 8월 '장애인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을 통해 장 회장님의 열정과 철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 회장님과 뜻이 통했고 이를 계기로 '저처럼 사회, 학교, 직장에서의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스승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에 지장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이번 지장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협회는 소외받고 살아가는 장애인,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잘못된 생각과 관행 바로잡고 지장협이 새로운 미래 열어나갈 것”

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우리 협회가 언제부터가 회원들의 권익이나 인권보다는 소수 장애인들의 권력사유화 또는 정치지망생들의 활극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특정개인의 출세의 발판이 아닙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대변자 또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과 제도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위에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또 하나의 권력구조로 변모해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故 장기철 회장님과 장애인 복지를 설계한 지장협 제1세대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이 모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장협의 설립 이념을 실천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Q 향후 지장협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첫째로 협회의 설립 이념을 바로 세우고 이에 걸맞게 협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장애인 단체로서 당사자주의의 실천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제도에 의한 감시·평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투명성을 가진 건전한 협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협회 재정운영 및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이익단체만이 아닌 시민단체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지방조직을 살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장협의 조직은 양적 팽창에만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중심의 정책을 개발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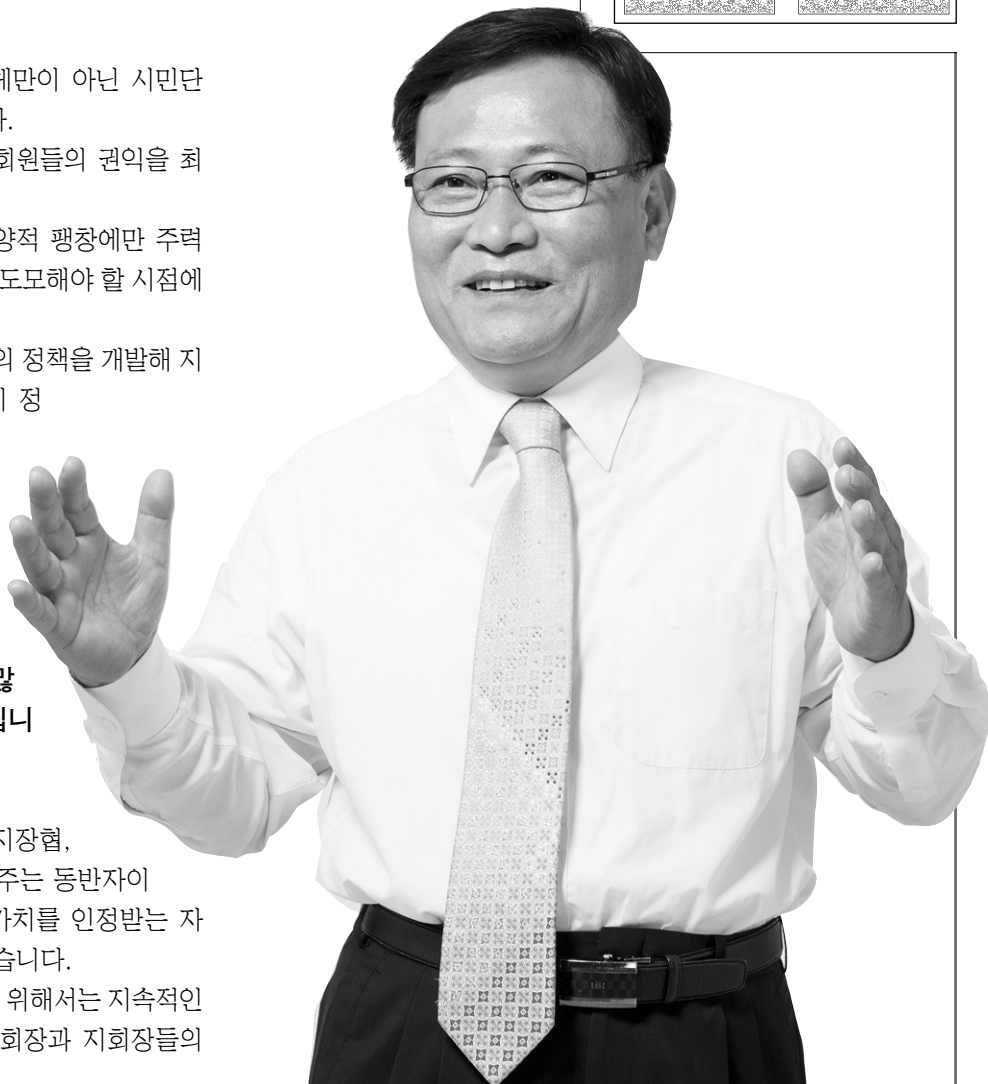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장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지장협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정의롭고 깨끗한 지장협,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는 동반자이자 우리 사회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지장협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장협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향한 시·도협회장과 지회장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저의 각오와 다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곁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장애인들의 주권확보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앙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 약력

○ 학력

1984 강릉대학교 상경대 무역학과 졸업
2004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경력

19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부장
200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근무
2001 보건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위원
2001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20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20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사
2001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이사
2003 보건복지부 옴부즈맨 위원
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실무위원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문위원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고용대책위원
2004 한국장애인재단 운영위원
200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
2005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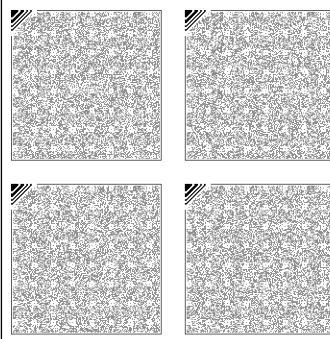
○ 상훈

1995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995 서울특별시장 표창
2012 대통령 표창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장협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국지엠한마음재단으로부터 차량 기증받아

기관 · 사업평가 심사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



인천센터가 '2013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차량기증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기증받은 차량.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편의 이하 인천센터)는 한국지엠한 시설지원센터(센터장 박창영, 마음재단으로부터 차량을 기증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받았다.

이는 인천센터가 지난 4월 '2013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차량기증사업'에 신청해 기관 및 사업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센터는 6월 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열린 차량 기증식에서 '스파크 L' 차량을 수령했다.

인천센터 주영진 과장은 "사실 신청서를 쓰면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차량을 기증받게 되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야외체험행사 실시

춘천에서 레일바이크 체험



제6회 중증장애인 야외체험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구지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구지회(지회장 정인식, 이하 연구지회)는 6월 3일 '제6회 중증장애인 야외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봉사자 80여명이 참여해 속초바닷가를 둘러보고 춘천 경강역에서 레일바이크를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오늘 나들이를 도와 준 봉사자들 덕분에 생전 처음 레일바이크도 타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연구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 개최

관광지 편의시설 우수사례 발표 및 정보공유



'2013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상반기 전문가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소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2013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상반기 전문가 워크숍'을 개

최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각 센터 직원들은 지역별 관광지의 편의시설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구청 감사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하고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수 직원에 대한 중앙회장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로는 광진구센터 고선미 주임과 성동구센터 허미영 주임이 선정됐다.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

다양한 행사 함께하며 우정 나뉘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 모습.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지회장 여운복, 이하 담양군지회)는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지회장 김용환, 이하 달성군지회)와 함께 6월 25일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담양군지회와 달성군지회는 지난 198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돈독한 우정을 나뉘고 있다.

담양군지회와 달성군지회 회원들은 친선대회를 통해 명랑 친선경기,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담양군지회는 이날 달성군지회와 상호교류하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47호

2013년 7월 22일

회 장 · 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이경선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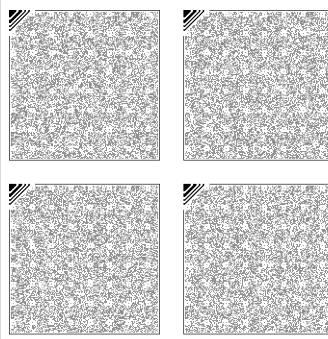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여성장애인, 포항전통문화체험관에서 행복충전

10월까지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진행



‘문화체험’ 참가자가 포항전통문화체험관에서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용성, 이하 포항시지회)는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2일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포항시지회는 여성장애인 20여명과 포항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해 난타, 두부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문화체험을 함께한 한 지체장애인은 “평소 남편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쉽지 않았는데 오늘 체험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포항시지회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가 여성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시낭송 기법 익히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 특강, 민화 액자만들기, 문화나눔 봉사활동, 감사음악회 및 작은여성영화제 관람 등도 실시된다.

“정보화교육장 새롭게 단장했어요”

롯데복지재단으로부터 희망물품 전달받아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은 6월 21일 롯데복지재단으로부터 1600만원 상당의 희망물품을 전달받았다.

아산장북은 컴퓨터, 책상, 의자, 복합기 등을 지원받아 정보화교육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복지관 이용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아산장북과 롯데복지재단의 희망물품 전달식 모습.

됐다”며 “희망물품을 지원해준 롯데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장북은 현재 기초컴퓨터반, 사무자동화반, 인터넷활용반, 스마트모바일반, 멀티미디어반, ITQ자격증반, e-스포츠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직계가족은 무료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장북 정보화교육장(☎041-545-7727)으로 하면 된다.

‘힐링 푸드 스토어’ 운영

여성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



달성장북은 여성장애인을 위해 ‘힐링 푸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북)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힐링 푸드 스토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힐링 푸드 스토어’ 사업은 30~5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달성장북은 지난 4월 위생교육, 식품안전교육, 요리

강습교육으로 구성된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난 6월부터 ‘힐링 푸드 스토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힐링 푸드 스토어’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달성장북 정우선 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관 11주년 맞아 기념행사 개최

재능나눔 공연 및 밥상 나눔 행사 실시



문경장북 개관 11주년 행사 모습.

인사말을 통해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애인의 복지증

진과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문경장북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이 개관 11주년을 맞았다.

문경장북은 6월 24일 복지관 이용고객과 지역장애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에서는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문경시지부 회원들의 재능나눔 공연이 열렸다.

또한 문경시 내수면 어업발전협의회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인 성금으로 참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 밥상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문경장북 박종훈 관장은 이날

볼링으로 하나 되는 세상

전북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볼링대회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북)은 6월 22일 정읍시더원볼링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3 전북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호남지역 장애인기관 및 단체 소속 선수와 LS 엠트론 볼링동아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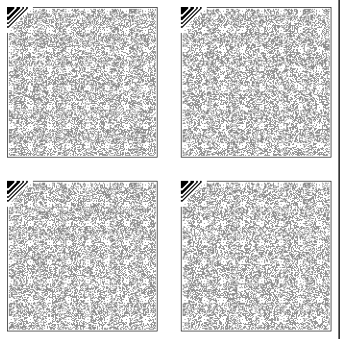
4인 1조로 팀을 이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광주장애인체육

회 정상원, 군산시장장애인연합회 변광숙, 까만공 이서형,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박진영 선수가 단체전 1위를 차지했다.

정읍장북 박종형 관장은 "이번 대회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사업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 어르신들의 추억 만들기”

건강한 삶 기원 사진 촬영 행사 실시



유성장북은 장애 어르신들을 위해 사진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장북)은 6월 11일 장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진 촬영 행사를 마련했다.

유성장북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선물했으며 사진 촬영 전 이미용 및 메이크업 서

비스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길선 사진작가를 비롯한 대덕대학교 재학생과 오지영, 전희영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도 돕고, 농민도 돕고”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성, 이하 북부장북)이 벽산엔지니어링(대표 이사 함영승) 임직원으로 구성된 벽산사회봉사단과 함께 1석 2조의 나눔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6월 22일 양주 맹골마을을 방문, 감자밭 일손 돕기를 통해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수확물을 노원구 일대 재가장애인 가구 및 복지관 이용고객에게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벽산사회봉사단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재가장애인 가구에 수확물 전달



북부장북 직원들과 벽산사회봉사단이 감자밭 일손 돕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부장북과 벽산엔지니어링은 매월 ‘유패, 상패, 통패’라는 주제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커피아리 종로5가점’ 개소식



‘커피아리 종로5가점’ 개소식 모습.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서울시 종로5가에 장애인들이 직접 꾸러가는 카페가 문을 열었다.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장 김영기)은 6월 3일 종로구청장 및 종로구의회 의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아리 종로5가점’ 개소식을 가졌다.

‘커피아리 종로5가점’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판매한다. 카페 수익금의 대부분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김영기 시설장은 오픈식에서 “‘커피아리 종로5가점’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장애인 자활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괴산을 일대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괴산을 일대에서 실시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모습.

괴산군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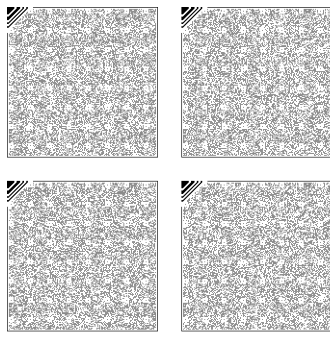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은 7월 8일 괴산을 일대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괴산장북 직원을 비롯한 괴산군장애인연합회 직원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장애인식개선 홍보물을 배포하고 피켓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괴산장북 정효선 관장은 “장애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인

장애인들,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 및 대책마련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7월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故 박진영 씨의 죽음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과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씨는 다섯 살 때부터 간질 장애가 확인되어 꾸준히 약을 복용했었고 4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박 씨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2010년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간질장애 3급에서 4급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올해 장애등급 재판정에서는 장애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결국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박 씨는 7월 3일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회복지



故 박진영 씨 추모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담당자에게 유서를 내밀며 청와 등에 보내도록 3부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 씨의 유서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과 관행에 대한 분노와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故 박진영 씨의 죽음은 절대 개인의 총동적 자살이 아니라 의무적 장애등급 재판정 조치에 따른 희생”이라며 “모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회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등급 재판정과 기초생활수급 박탈이라는 가짜 복지제도가 장애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적 사과, 장애등급 재판정 전면 중단, 활동지원제도 등급 제한 폐지 및 대상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장애인 체육선수 폭행 · 성희롱한 지도자 인권위, 장애인체육회 · 문체부에 방안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의 장애인 선수 폭행과 성희롱, 금품수수 등이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

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성희롱,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선수로 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했으며 B 지도자는 선수의 뺨과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일부 지도자는 장애 여성 선수의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고 C 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선에 대한 구타 및 폭언을 목격하고도 이를 간과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도 소홀

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

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장애의 이해 및 인권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장애인공약 이행률 절반 수준

중간평가 결과 121개 공약 중 69개 이행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공약 이행 평가 결과 유권자에게 제시한 장애인공약 121개 중 57%인 69개 공약만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6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 공약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별 장애인공약 수는 서울시가 22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시, 광주시, 충청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 1개, 충청남도 2개, 경상북도는 3개의 공약만을 제시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다.

각 시·도가 제시한 장애인공약을 분야별로 보면 이동권 관련

공약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재활 및 고용, 자립생활, 시설확충, 문화·체육 관련 공약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률은 충청남도가 100%로 가장 높았다. 대전시(89%), 부산시(83%)도 공약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시(20%), 인천시(33%), 광주시(20%), 전라북도(0%), 전라남도(0%), 경상북도(0%), 제주도(50%) 등 7개 시도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57%에 그쳤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

장애인의 균형 발전과 삶의 질, 복지·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문제에 단체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민선5기 지역단체장들은 잔여 임기동안 공약들을 재점검해 미흡하거나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공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공약수	121	22	18	5	9	15	9	5	4	4	12	2	1	2	3	10
매우 우수 공약	69	15	15	1	2	3	8	3	3	3	9	2	0	0	0	5
	57%	68%	83%	20%	33%	20%	89%	60%	75%	75%	75%	100%	0%	0%	0%	50%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시·도별 장애인공약 이행률.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동휠체어와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는 전동스쿠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세 감면 품목 지정 필요”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품목에 전동스쿠터의 확대 지정을 요구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장애인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다. 이들 보장구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세 면제 품목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제품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장애인은 필요한 보장구가 있음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보장

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61.6%의 장애인이 비용 때문에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전동스쿠터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장

구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스쿠터(43,180건)가 전동휠체어(35,435건) 보다 지급건수가 더 많았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수입물품 관세 등의 감면에서 전동스쿠터를 제외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기관

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가격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분야로 분류했다.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

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비급여 가격 관련 책자 비치 장소를 안내 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관련 정보를 배치,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장고협 회장 이·취임식 열려

조향현 회장, “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해 힘쓸 것”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김광환 전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참석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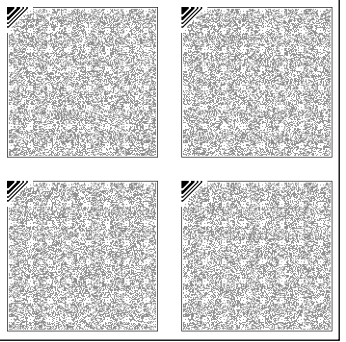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7대 조향현 회장의 취임식이 7월 2일 서울 리더스나인 서대문점에서 열렸다.

취임식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민주당 최동익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향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자립이라 생각한다”며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장애인들의 자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소리로 읽는 새보람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향현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한편 조향현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제6대 김광환 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광환 전 회장은 “조향현 회장이 잘 해낼 것이라는 걸 잘 알기에 떠나면서도 마음이 훌가분하다”며 “향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합리성과 성실성이 바탕이 되는 협회로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등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개정 시행

앞으로 장애인·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

과 20%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또한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장애인·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를 신설해 적용하며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억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장애인 생활제품 및 시설 표준화

기술표준원,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 발표

앞으로 장애인용 생활제품과 시설이 표준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2014년까지 개선하는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을 6월 27일 발표했다.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은 국민 불편 해소를 통한 편안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함께하는 사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풍요로운

사회 등 3대 분야 40개 과제로 구성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올해 과제에는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기준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내년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등 각종 장애인용 생활제품과 시설 표준화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국민 불편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품질에 대한 KS인증 도입, 노트북 충전기 호환, 증간소

음 방지소재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창유리 성능 평가 기준 마련 등이 실시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선정된 국민행복표준화 과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과 사회복지단체가 다수 참여하는 ‘국민행복표준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국민들이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SNS를 개설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하위법령 제·개정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6월 19일 제·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그동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감안해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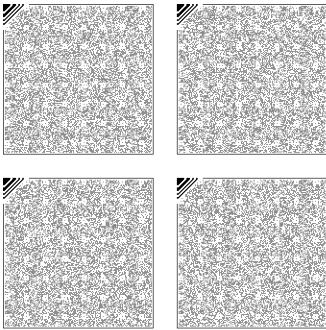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던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시켰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관련 보도 현황은?

‘장애인의 날’ 주간 보도량 34% 감소

인물 기사 가장 많아...정책 이슈 관심 부족



‘제33회 장애인의 날’ 주간엔 장애인의 당당한 삶의 모습을 보도하는 기사는 증가한데 반해 장애계 정책이슈를 다룬 기사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중앙일간지 10곳과 경제지 4곳 등 주요 신문의 장애인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4월 25일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보도량은 총 168건으로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 총 256건의 기사가 검색됐던 것과 비교해 34% 이상 감소했다.

질적인 측면에서 ‘일반기사’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기획의도를 갖고 보도된 ‘전문/기획기사’는 총 8건에 그쳐 27건이었던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전문/기획기사’가 감소한 이유는 ‘장애인의 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인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물 기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사/정보’ 21건, ‘선행/봉사/기업후원’ 18건, ‘기업문화/사회적기업’ 15건 순이었다.

‘인물’에 대한 기사가 많은 이유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진행되는 ‘올해의 장애인 상’ 시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담’ 기사가 지난해 6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18건으로 나타나 장애인 주간 기사의 다수를 차지 하던 ‘미담’ 기사들이 감소하고 장애인의 당당한 삶의 모습을 보도하는 기사가 증가한 점이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장애인 정책이슈들은 모두 10건 이하로 ‘고용’ 8건, ‘교육/보육’ 5건,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 5건, ‘문화향유권, 복지서비스 및 예산’ 4건, ‘무장애/편의시설’ 3건, ‘웹접근성과 활동보조인, 등 급제폐지’ 등의 정책이슈는 각각 3건이었다.

그 외 ‘정신장애인의 문제’, ‘탈시설’, ‘차별철폐’ 등의 정책

이슈들이 보도됐다.

한편 종합일간지 10곳 및 경제지 4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비하용어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24건의 비하용어가 모니터 됐으며 그 중 ‘병어리’가 44건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장애자’ 27건, ‘절름발이’ 23건, ‘장님’ 16건, ‘정신박약’ 5건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기획, 정책이슈를 다룬 기사가 감소하긴 했지만 장애인 주간 기사 보도가 ‘미담’ 중심의 기사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저작물 접근권 개선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6월 27일 채택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포함한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개 NGO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다. 채택된 조약에서는 △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형 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인 승인

된 기관의 범위 △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

립이 지속됐던 주요 규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G전자, 시·청각장애인용 소형TV 출시

“장애인 접근성 높은 제품 개발에 앞장설 것”

LG전자가 장애인 접근성을 극대화한 23형 소형TV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TV에는 시·청각장애인 모두를 고려한 기능이

탑재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기능은 화면에 표시된 영상 정보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음성으로 지원한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화면해설 신호를 받아 화자가 누군지 알려주거나 대사로 표현되지 않는 장면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기능도 지원한다. 특히 사용자 편의에 따른 자막 위치와 색상 변경이 가능하다.

이들 기능은 전용 리모컨에 있는 각각의 핫키(Hot Key)를 눌러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핫키를 포함한 주요 버튼에 점자를 적용했다. 주요 기능에 대한 점자 매뉴얼도 기본 제공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에 연내 1만대 공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제품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도 판매를 실시한다.

LG전자 김영락 한국HE마케팅담당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 개발, 출시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도 제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 환경 조성

기아차, '트래블 프런티어' 발대식 가져

기아자동차는 6월 24일 한국관광공사 야외공연장에서 '트래블 프런티어(Travel Frontier)'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트래블 프런티어' 활동은 기아차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손잡고 장애인이 여행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발대식에는 '트래블 프런티어'로 선발된 장애·비장애 대학생 75명과 강기흥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김견 기아자동차 전무, 백종환 에이블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트래블 프런티어'는 총 25명, 5개 팀으로 구성된 유스(Youth) A그룹(팀당 장애인 2명, 비장애인 3명), 25개 팀으로 구성된 유스(Youth) B그룹으로(팀당 장애



장애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트래블 프런티어' 발대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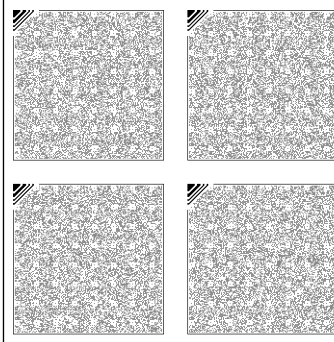
인 1명, 비장애인 1명) 나뉘어 각 팀 별로 여행을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광지를 홍보하는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스A 그룹에 속한 5개 팀은 6월 29일부터 약 10박 11일 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을 중심으로 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

을 직접 운전해 20개 이상의 여행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펼친다.

유스B 그룹에 속한 25개 팀은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팀 별로 2회에 걸쳐 대중교통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을 이용해 자유롭게 1박 2일로 여행지를 탐방하며 회당 5개 이상의 여행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새로운 여행 코스를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트래블 프런티어'가 작성한 관광지 평가 자료는 장애물 없는 여행 지역 발굴 및 여행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되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여행 정보 웹사이트 '함께하는 여행'(<http://www.access.visitkorea.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기아자동차와 한국관광공사는 '트래블 프런티어' 프로그램의 공동추진 및 장애인 관광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8월까지 운영

장애인 위한 시설 설치 및 무료셔틀버스 운행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8월 17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해수욕장에서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를 운영한다.

캠프가 운영되는 광진리해수욕장에는 24시간 안전요원이 배치되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

용 이동로, 장애인화장실, 가족 샤워장 등이 설치된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무료셔틀버스도 하루 1차례 왕복 운행된다.

또한 50개의 숙박용 텐트(단체용, 가족용)와 취사도구(가스

버너, 식판, 식수), 물놀이 안전용품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시설과 해변을 연결하는 이동통로와 해충퇴치기가 설치된다.

참가단체의 프로그램 진행 편의를 위해 행사무대, 빔 프로젝트, 노래방기기 등이 제공되며

캠프 기간 중 '음악회', '곰두리 해변축제'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장애인 무료해변캠프'에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곰두리봉사협회 홈페이지(www.komduri.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 952-9001)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화상상담 서비스 실시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서울 한남동 고객센터에 화상상담센터를 열고 화상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화상상담서비스는 스마트폰과 PC, 화상 전용 부스 및 AT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이 장소에 구애 없이 은행 직원과 얼굴을 마주보고 상품 리플릿과 자료화면을 공유하며 상담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이다.

IBK기업은행은 언어·청각장애인 고객들을 위해 수화상담원을 배치했으며 전 지점

에 비치된 IP 영상전화기를 수화 상담원과 연결해 모든 영업점에서 수화상담 및 수화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화상 전용 부스는 강남역과 홍대역, 마들역, 구로디지털중앙, 수원올레플라자 등 5개 영업점에서 시범 운영되고, 화상ATM은 잠실파크리오점에 설치됐다.

스마트폰으로 화상상담 시에는 IBK스마트뱅킹 또는 모바일홈페이지(mini.ibk.co.kr)에서, PC는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2013년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소재공모전 개최

7월 26일까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로 접수

'2013년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소재 공모전'이 개최된다.

'2013년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소재 공모전'은 중·고등학교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작은 수기, 시나리오, 소설 등 형식에 관계없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된다. 또한 교육드라마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7월 26일까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www.wefirst.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cfpd@chol.com)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8월 14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7명이 선정되며 대상부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삼성화재사장상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www.wefirst.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이·취임식



7월 15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이·취임식 전경.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김정록 전 중앙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김정록 전 중앙회장에게 명예회장 추대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전 중앙회장이 이임사를 전하고 있다.



김정록 전 중앙회장이 정임숙 울산협회장으로부터 감사의 선물을 전달받고 있다.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지장협 의 새로운 출발과 성공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축사를 건네고 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축사를 낭독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과 취임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과 지장협 시·도협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새보람 요양병원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 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내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운영하고 있는 새보람 요양병원은 장애인 행사 의무대 활동지원, 장애인 방문의료서비스, 복지관과 협력한 지역연계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작년 5월부터는 지체장애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형외과

이 외에도 병원생활에 무료해지기 쉬운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웃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새보람 요양병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방과



장애인 행사 의무대.



맞춤식 재활치료 프로그램.



웃음치료.



어버이날 행사.

대표전화 02.3492.7888



“국내기술로 세계 최고의 휠체어 만들거예요”

(주)휠라인 금동옥 대표, 장애인 된 후 휠체어 제조업에 몰두

“제가 만든 휠체어를 타고 생활 속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면 좋아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휠체어 제조회사 (주)휠라인의 금동옥 대표(41)가 휠체어를 만드는 이유다.

장애인이 된 후 휠체어 만드는 일에 뛰어든 금동옥 대표.

오직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손수 휠체어를 만들며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중학교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금동옥 대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했다. 우유배달, 신문배달, 자동차 정비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했다.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살다 보면 그만큼 나은 미래가 열릴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다. 22살이 되던 해 길을 지나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도우려다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리고 그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기나긴 어둠 속 터널을 지나왔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두 달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였지만 장애 판정을 받고 현실이란 벽에 부딪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 다시 찾은 희망

그러나 마냥 신세를 한탄하며 있을 수만은 없었다.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장애인이 된 후 휠체어 제조 외길을 걸은 (주)휠라인 금동옥 대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몸이 점점 안좋아져 일단 재활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을 하면서 잘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일 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휠체어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곳에서 어렵사리 일을 하게 됐다.

“휠체어를 판매해야 했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주로 휠체어 수리를 맡아 했어요. 그런데 수리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휠체어가 수입제품이라 우리나라 사람 몸에 잘 맞지 않을뿐더러 AS에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그는 우리나라에도 휠체어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

자신이 직접 휠체어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고 1999년 (주)휠

라인을 설립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개척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스포츠용 휠체어를 제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막상 시작해보니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배신감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결국 2004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2년 동안 집에만 머무르며 잠시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작은 창고를 얻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휠체어 설계, 용접, 가공 기술을 손수 익히며 휠체어 제작에 매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운동선수가 찾아왔고 금 대표는 그를 위해 신체사이즈와 장애유형에 맞는 휠체어를 제작해줬다. 그 선수는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점점 금 대표의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주)휠

라인을 찾는 운동선수들도 점점 늘어갔다.

■ 더 큰 꿈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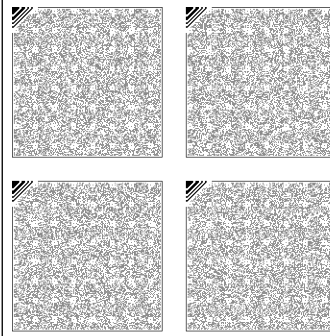
금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휠라인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선정됐고 장애인 고용창출에도 앞장서며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휠체어를 기증하고 무상 수리를 책임지는 일에도 적극적인 금 대표는 2012년 대통령표창을, 2013년에는 ‘자랑스런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남을 돕는 일이 오히려 행복이라고 말한다.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기보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죠”

현재 (주)휠라인은 럭비, 테니스, 배드민턴, 사격, 댄스스포츠, 펜싱, 농구,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용 휠체어를 국내기술로 제작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그리고 이제는 개인별 장애유형과 신체사이즈에 맞는 맞춤형 활동형 휠체어도 제작하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하루 3~4시간 밖에 못 잔다는 금 대표는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제 꿈은 세계 시장 진출이에요. 사실 (주)휠라인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랑 세계 시장에 우리 휠체어를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봐야죠”

■ 아쉬운 장애인 지원 제도

“요즘에 운동을 즐기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저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바깥 활동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만든 휠체어지만 가격 때문에 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미안해져요”

금 대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스포츠용 휠체어를 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장애인들도 삶의 질이란 것이 있는데 사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대안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휠체어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도 뭔가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일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금동옥 대표.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작업실을 향해 귀 기울이더니 기계가 멈춰 있다며 서둘러 작업실로 향하는 그의 모습에서 일에 대한 그의 열정과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서울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시범운행

휠체어 미사용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7월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이용 희망시간 2시간 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면 순서대로 배차를 하게 된다.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 1588-4388),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이나 팩스(☎ 2290-6518)를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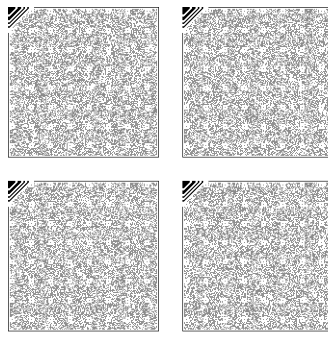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서울시 및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을 위해 운행되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서울시에 인접한 부천, 김포, 양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공항공 구간을 운행한다.
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도 12개 시와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
다만 수도권지역에 장애인의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기본 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서는 1km당 300원, 10km 추가 때부터 1km 당 35원씩 추가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한 후 성과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연장 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인권 침해 등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실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 내부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강화하고 시설 외부 인원 보장을 위한 ‘인권감독

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인권침해를 24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센터’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 인권보장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구체적인 인권보장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설거주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해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발생부터 해결까지 8개의 단계를 매 뉴얼화해 침해사실 인지부터

침해 복구까지 절차를 준수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사례 재발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내놔

장애인 동의 있어야만 도로준공 허가

경기 파주시(시장 이인재)가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 준공 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장 확

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도로 설계단계에 장애인을 포함시켜 공사에 들어가

기 전 미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 시공 후 감리단계에도 장애인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당초 설계대로 장애인 이동이 용이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도로 이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을 때만 시의 준공허가가 나게 된다.

파주시 이인재 시장은 “도로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신규 도입하고 콜택시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장애인복지카드 우편 배송 서비스 시행

발급기간도 15일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시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3,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충청지방우정청과 ‘장애인복지카드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 및 우편요금

후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한 장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달과정을 조회할 수 있다.

단, 등기우편 배송시 부재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3회까지 수령지 방문 후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복지카드를 환부, 교부할 방침

이다.

또한 15일 이상 소요되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기간도 1주일 이내로 단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광주시, 정신장애 치유 가족프로그램 운영

11월까지 3단계 교육...내년 참여 대상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민선 5기 중점사업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내놓아 화제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의 상황인식과 심리적 치유

를 통해 스스로 행복한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생활밀착형 복지교육사업인 ‘패밀리 링크(family link)’ 프로그램을 11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3단계로 나눠 교육하는 ‘패밀리 링크(family link)’는 기본교육(1회~8회기), 심화교육(9회~12

회기), 중앙심화교육으로 진행된다.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도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향후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강사들이 새로운 환자

와 가족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품앗이 환경’을 조성해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환자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시스템을 확보해 이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민지킴이 환경구축’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조례개정안 통과...7월 1일부터 시행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그동안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에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지원금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6월 7일 성남시의회 제 1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도 1년 전에서 180일 전으로 하되, 180일 미만은 출생신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복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 출산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쌍생아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하며, 신청기한도 1년

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총 575명에게 일자리 제공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7월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110명(24%) 늘려 575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행정도우미에 153명(65명 증원), 장애인복지일자리 357명(30명 증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사업수행기관인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참여자로 선정되면 장애 특성을 고려해 동 주민센터,

1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14시간 근무에 월 27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주 25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선이다.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사업수행기관인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참여자로 선정되면 장애 특성을 고려해 동 주민센터,

구청, 기타 공공기관, 병원, 도서관, 우체국 및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전우광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확보해 가족들의 보호로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 설치

익산시(시장 이한수)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익산시는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도중 배터리 방전 등의 위기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팔봉공설운동장내 실내체육관, 영등도서관에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를 설치

했다.

익산시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동차의 배터리 고장과 수명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충전기를 마련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체육공원 위주로 충전기를 설치했으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 360시간으로 확대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를 36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최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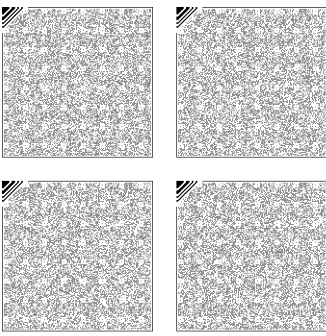
1인 및 독거가구를 대상으로 117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를 지원했으나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달부터 36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독거가구이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지원하며 추가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문조사에 따른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준수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난해 화재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V

지난호에서는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여객시설, 도로 등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동 기준은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시설증양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홍현근**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 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 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0.7m</p> <p>0.6m</p> <p>1.5m</p> <p>장애인전용 주차구역</p> <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교통표지표가 부착된 교통표지판의 뒷면과 뒷면이 있는 곳에 평행한 방향으로 수직으로 설치한다.• 건물 주변에 장애 구역은 10미터의 경계로 표시한다.• 주차시설을 발견한 후 분관 신고전화번호 000-0000에 신고하여야 한다.	<p>0.7m</p> <p>0.6m</p> <p>1.5m</p> <p>장애인전용 주차구역</p> <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교통표지표가 부착된 교통표지판의 뒷면과 뒷면이 있는 곳에 평행한 방향으로 수직으로 설치한다.• 건물 주변에 장애 구역은 10미터의 경계로 표시한다.• 주차시설을 발견한 후 분관 신고전화번호 000-0000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표준(ISA)	안내표지판 플형 설치	한국표준(KS DA)
<p>0.7m</p> <p>0.6m</p> <p>장애인전용 주차구역</p> <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교통표지표가 부착된 교통표지판의 뒷면과 뒷면이 있는 곳에 평행한 방향으로 수직으로 설치한다.• 건물 주변에 장애 구역은 10미터의 경계로 표시한다.• 주차시설을 발견한 후 분관 신고전화번호 000-0000에 신고하여야 한다.	<p>0.7m</p> <p>0.6m</p> <p>장애인전용 주차구역</p> <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교통표지표가 부착된 교통표지판의 뒷면과 뒷면이 있는 곳에 평행한 방향으로 수직으로 설치한다.• 건물 주변에 장애 구역은 10미터의 경계로 표시한다.• 주차시설을 발견한 후 분관 신고전화번호 000-0000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표준(ISA)	안내표지판 부착형	한국표준(KS DA)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대상시설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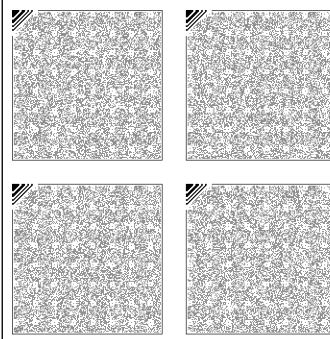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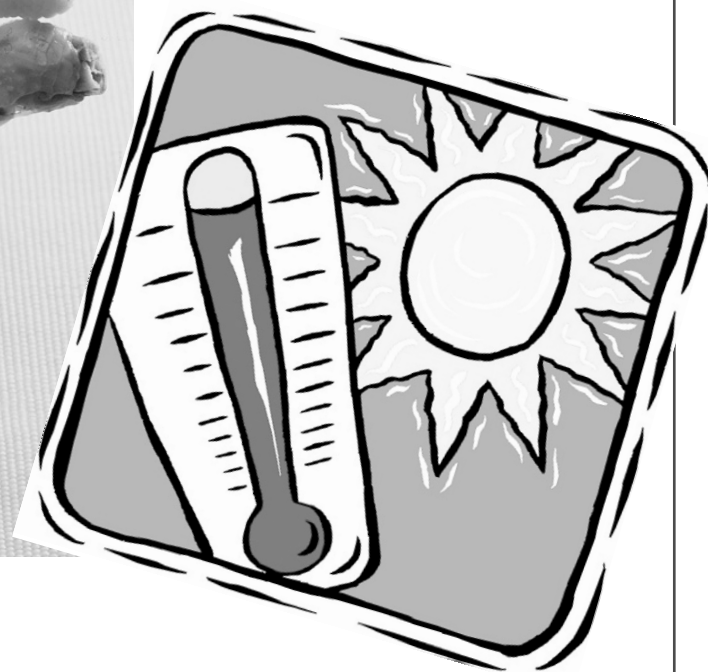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2. 여객시설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	매개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여객자동차터미널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
도시철도역사		○
환승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광역전철역사		○
3. 도로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도로		○
준용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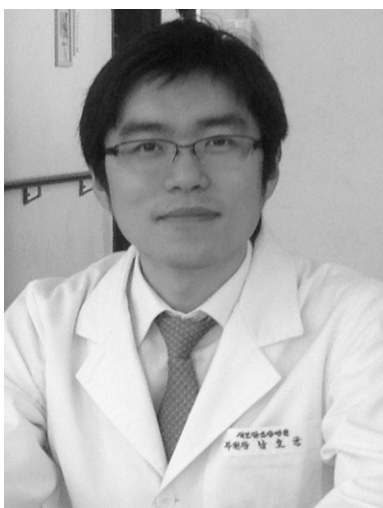
소리로 읽는 새보람



주하병의 제반 증상을 잡아주는 삼계탕.



더운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황기 넣은 삼계탕으로 양기 보충하세요!



새보람요양병원 제2진료원장
남호균 (한의사)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저는 먼저 복날이 생각납니다.

복날에 삼계탕 가게 앞에 길게 줄 서서 삼계탕을 먹는 풍경은 진짜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을 먹는 모습을 외국인이 본다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체 이 더운 날 왜 삼계탕을 먹는 것일까요?

■ 더운 여름 나타나는 주하병(注夏病)

삼계탕을 왜 먹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하병(注夏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하병이란 여름에 입맛이 없어지고 머리가 빙하게 아프며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열이 나기도 하는 증상군을 일컫는 한의학적 병명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증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주하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름철에 과다한 땀의 배출로 인해 체내의 양기가 밖으로 빠져나는 것과 여름철 차가운 음료,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서 장운동이 저하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체내의 양기가 빠져나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노곤해지며 활발하지 못한 장운동으로 몸 안에 탁한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서 두통 및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삼계탕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이에 우리 선조들은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삼복일을 정해 삼계탕을 끓여 먹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삼계탕에 땀을 잡아주는 황기를 듬뿍 넣어 땀으로 배출된 양기를 보충하는 동시에 속을 따뜻하게 해 장운동을 촉진시켜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주하병의 제반 증상들을 잡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한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도무지 이 더운 날 삼계탕 집 앞에 왜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삼계탕에 담긴 속뜻을 알고 나니 무더운 날씨에도 길게 늘어선 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여름에는 소중한 친구, 가족들과 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지혜를 나누어 볼 계획입니다.

새보람 독자 여러분도 소중한 분과 함께 삼계탕 한 그릇 같이 하시며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황윤상 (변호사)

Q) 갑은 친구 을의 개인 사업과 관련한 OO은행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당시 을은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갑은 별다른 걱정 없이 보증을 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3일 경 을의 개인사업체가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어 OO은행은 갑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갑은 2012년 2월 15일 경 을의 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을은 2012년 1월 30일 경 자신의 10억 상당의 건물을 자신의 동생에게 10억원에 처분하였고 그 건물은 을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갑은 을의 1억원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을에게 1억원을 돌려달라고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하나, 을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갑이 구상금 청구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적 해결책이 존재할까요?



A) 우선 갑과 같이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설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이미 본인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 버릴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여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친구를 믿고 담보설정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처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된다면 갑은 그러한 건물처분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하고 그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의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 을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2012년 2월 15일 이후)에 을이 건물을 처분하였어야 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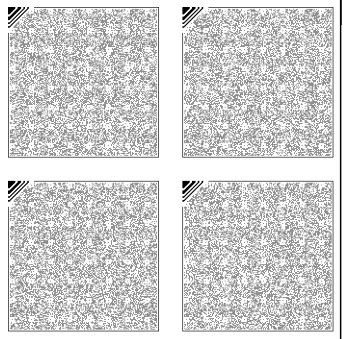
그러나 을이 2012년 2월 3일 부도가 났으므로 2012년 1월 30일 경에는 을은 자신이 부도가 나서 갑의 구상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

인 건물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됩니다.

을은 자신의 동생에게 건물을 처분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 간의 매매인 경우는 매수인인 동생 역시 을의 사해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변호사 황윤상, 신지원 : 전화번호 (042) 488-4141 팩 스 (042) 488-4131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



Q)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A) ■ 할인카드 발급 대상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

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 할인을 : 50%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Q) 하이패스차량의 통행료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사무소(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읍·면·동을 방문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장애인이

제출한 복지카드(할인카드 포함),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장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합니다.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합니다.

복지부, 하반기 장애인일자리 확대 추진

추경예산 80억원 투입...3천명 신규 제공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인력 시범사업’ 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고 8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행정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주로 배치되어 복지업무 보조, 주차단속, 환경미화, 안마서비스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인 이상 민간 기업까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적용해 3,0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인턴형 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4

대 보험을 제외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수행기관, 민간기업, 장애인 등은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7월 중에 민간위탁기관 공모와 참여자 모집을 진행해 7월부

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복지부는 취업이 어려운(취업률 16.5%) 성인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인력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약 14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7월

중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등을 개발해 발달장애인에게 적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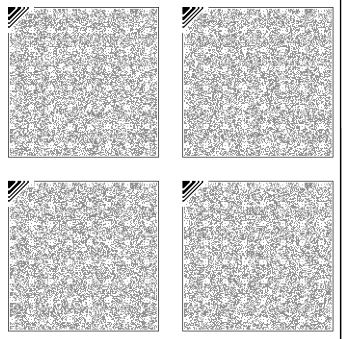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종합평가 등을 통해 매년 사업확대 및 신규 일자리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경비직	(주)티지엠	경기도 광주	65세 이하	남	빌딩경비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2	서비스직	(주)선정인터내셔널	서울시 종로구	40세 이하	여	아웃바운드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5세 이하	남	소독원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사무보조직	금융감독원	서울시 영등포구	50세 이하	무관	사무보조 및 행사지원	107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마포구	65세 이하	여	아파트 미화직	월 8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운전직	(주)지피솔루션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남	거래처납품 및 배송	월 1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검수직	현대엠앤소프트	서울시 동작구	20~30대	무관	네비게이션 검수	연봉24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경비직	혜진종합관리	서울시 노원구	65세 이하	남	아파트 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상담직	케이디텍	서울시 은평구	45세 이하	무관	상담직	월 120만원 이상	4대보험	02-2289-4322
10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시 양천구	65세 이하	남	아파트 경비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2	서비스직	맥스터디	전국	50세 이하	무관	중고등학생 수학 영어 강사(재택근무)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3	상담직	메디원의료정보 컨설팅	서울시 동작구	연령무관	무관	상담직	면접 후 결정	4대보험	02-2289-4322
14	생산직	미주산업	서울시송파구	45세 이하	무관	액세서리 조립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단순직	샘물실업	경기도 남양주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 90만원	4대보험미가입	02-2289-4322
16	생산직	O.HIVS컨설팅	경기도 파주	42세 이하	남	휴대폰 액정필름 검수	월 2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7	생산직	로알 라이프	서울시 구로구	50세 이하	무관	생산직	월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8	주차정산	롯데마트 (시흥점)	경기도 시흥시	45세 이하	여	주차정산원	시급 5250	4대보험	02-2289-4322
19	경비직	(주)동아씨에스	서울시 동대문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S-OIL, 발달장애인의 꿈과 희망 지원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1억원 후원

S-OIL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나섰다.

S-OIL은 6월 12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S-OIL이 전달한 후원금은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활동 지원과 음악적 재능을 지닌 저소득 가정 장애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출신으로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 연주자로 활동

하고 있는 단원 5명으로 구성된 ‘하트미라콜로 앙상블’의 ‘해피 스쿨’도 지원한다.

‘해피 스쿨’은 전국 초등학교에서의 연주회, 퀴즈·영상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다.

S-OIL 관계자는 “장애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5년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해드려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500원의 희망선물’ 실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삼성화재RC는 충청남도 부여군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500원의 희망선물’을 실시했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삼성화재 RC들이 판매한 장기보험 계약 1건당 500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캠페인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오래된 농가주택에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 두 가구를 선정해 집수리를 진행했다.

먼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어르

신이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입구와 화장실, 거실을 개보수하고 낡은 지붕을 교체했다.

또한 각각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전기온돌장판을 설치하고 화장실 및 주방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500원의 희망선물’을 통해 총 173곳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3년 6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병석, 강상훈, 김영희, 김구환, 김영진,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민박상조희,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동녀, 선병욱, 우리은행노원지점, 우병훈,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유지영, 육근록, 윤채환, 이은정, 이진행, 이태훈, 이효직, 임채종, 장병철, 장추자, 정다운, 정선용,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하정미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 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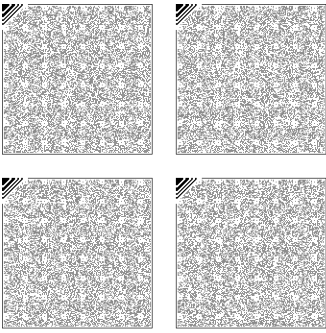
정답
힌트

〈교육〉여름의 한창 더울 때에 일정 기간 수업을 쉬는 일.

1★	2		3		4	
5			6	7★		
★				8		9
10	11		12			
			13★		14	
	15				16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1★호	2 박				2 애	마
	4 수	제	5 비		★ 국	
			행		6 가	7 곡
8★선	9 거		10 기	11★열		예
	머			12 변	13 호	사
	14 리	스	15 본		랑	
			16 드	라	이	

| 가로열쇠 |

1. 예전에 학생의 훈육을 주관하는 교사를 이르던 말.
4.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5.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름. 또는 그 이론 결과.
6.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
8.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내용을 적은 글.
10. 갑자기 세계 부는 바람.
13. <건설> 높이 밀려드는 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바닷가에 쌓은 둑.
15. 숯불을 피워 놓고 쓰게 만든 큰 화로.
16.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 세로열쇠 |

2. <경제>단위 노동을 들여 만들어 낸 생산물의 양.
3.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4. 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뿔나무.
5. 물에 오래 씻기고 뒹굴어서 모가 없어지고 두루뭉술하게 된 돌덩이.
7.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9.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
11. <미술>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
12.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14.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7월 15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3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광환 신임 중앙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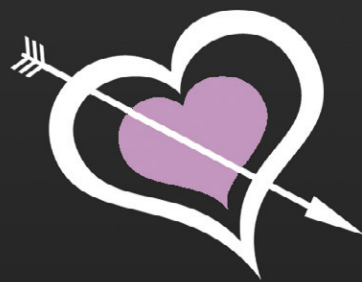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Sweet Meeting, fall in love~



소로 탈출 119

일 시 : 2013.8.31(토) 11:00~16:00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B1

참가대상 : 미혼남녀(20세~45세)

신청기간 : 8월 23일(금)까지

신청방법 : 지장협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공지사항 참고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장애인맞선이벤트!!

